

구글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은 정부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9.9) >

◆ 구글 “한국 지도 방위 좌표 뻐다”...보안시설도 차단

○ 정부 요청 수용...티맵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 확대

- 구글사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글 영상의 보안처리, 좌표표시 제한, 국내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.
- 이번 구글사 기자회견담회(9.9. 10:00)에서 발표한 것은 정부의 좌표표시 금지 조건에 대하여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나,
- 국내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글사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,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대섭 (044-201-3458)
	국토정보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최보람 (044-201-3465)
	공간정보제도과	담당자	사무관	김통일 (044-201-3480)